

Contents

May 2007

농림부, 2007년 4월 4일~5일, 4월 5일~6일, 4월 6일~7일

- 02 - 축산단신
- 04 - 기획특집
돼지도체 품질(육질)등급의 이해
- 06 - 전문가심층분석
2006년도 축산물 생산비 조사 결과
- 08 - 소·등급판정우수농가탐방
'황금농장' - 유영준 농가
- 09 - 돼지·등급판정우수농가탐방
'청하농장' - 최인환 농가
- 10 - 축산식육상식
스트레스 풀어주는 돼지고기
- 11 - 소·돼지산지및도매시장가격동향
- 13 - 등급판정통계자료
4월중 축산물등급판정 결과
- 18 - 경영혁신
이달의 혁신 뉴스
- 19 - 등급판정소식



표지사진: 금남학
충북지스물성출출소장장은 수작

쇠고기 등 축산물 유통과정 거품 빼기로

농림부는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축산물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해 유통단계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기호 농림부 축산물위생과장은 2일 "시장자체가 경쟁적으로 만들어져 소비자가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직매장을 개설해 나가는데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림부는 또한 소비자들이 가격비교를 통해 보다 싼 값에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신뢰할 만한 기관을 통해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쇠고기 가격정보가 서비되고 있지만 한우 등심과 불고기에 대한 월별 전국 소비자가격 동향만 제공돼 유통업체별 가격에 대한 비교분석이 불가능하다. 농림부는 주단위·월단위로 주요 유통업체별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확한 시장가격 형성을 위해 현재 시범운영되고 있는 쇠고기이력추적제 적용대상을 2008년 하반기에는 모든 한우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기소 한마리 순익 59만5천원

지난해 한우의 가격과 체중은 늘어나고 생산비는 줄어들어 소 사육 농가의 수익성이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 지난 달 26일 발표한 '2006년도 축산물 생산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비육우 한 마리를 통해 얻은 순익은 59만5천원으로 집계됐다. 젖소의 경우 한 마리당

순익은 17만1천원으로 3.8% 늘었다. 농가가 지난해 돼지(비육돈) 한 마리를 길러 얻은 평균 순익은 8만2천원으로 2005년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닭의 경우 지난해 전반적으로 산지가격이 떨어져 수익성이 나빠졌다. 달걀을 얻기 위해 기르는 산란계는 마리당 4천31원의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기를 얻기 위한 육계는 순익이 12.3천원으로 57.1% 급감했다.

캐나다 BSE 발병

캐나다에서 또 BSE가 발생했다. 캐나다식품검역원(CFIA)은 지난 2일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출생의 젖소로부터 BSE를 확진했다고 밝혔다. 해당 소는 66개월령으로 1997년 사료제한조치 이전에 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식품검역원은 "국제기준에 따라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며 이번 감염우는 농장차원의 국가예찰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된 것"이라며 "이 프로그램으로 2003년 이후 위험축군 16만 마리의 소가 테스트를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캐나다는 또 오는 7월 12일부로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사료제한 조치를 통해 잠재적 BSE 감염물질의 캐나다 사료 시스템으로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향후 10년간 일부 소에서 추가발생이 확인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미 농무부는 이번 조치로 30개월령 미만의 캐나다 생우 수입을 허용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물돼지 출현율 소폭 상승

물돼지 출현율이 다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축산물등급판정소에 따르

면 4월냉도체 육질등급판정을 받은 돼지는 1만9천723파리로 전월 1만8천57파리에 비해 6.2%, 지난해 동월 1만7천920파리 대비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물돼지는 1천286파리로 6.5%를 차지, 3월 6.4% 대비 0.1%P 올랐다. 반면 지난해 동기 8.4%에 견줘서는 1.9%P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4월말 냉도체 육질등급 판정 돼지는 6만3천204마리로 지난해 같은 기간(6만4천53파리)에 2% 줄은 가운데 물돼지는 6.3%로 일년전 7.7% 대비 1.4%P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돼지·닭고기도 원산지 표시 의무화 추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음식점에서의 식육원산지 표시 적용 대상 영업장을 100개소(30점)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원산지 표시 품목도 쇠고기 외에 돼지고기, 닭고기 등에도 의무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개정안을 입법발의할 계획이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음식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허위표시를 한 음식점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1일 이처럼 원산지 표시대상 및 영업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위반했을 경우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개정안을 권오을 농림해양수산위

원장이 대표발의하고 농림해양수산위원 18명 전원과 여의원 50여명이 공동발의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체업소 57만3천6백39개소 중 20.5%인 11만7천7백43곳의 일반음식점이 의무대상 업소로 확대되고, 쇠고기 구이류 취급업소 4만4천2백36개소 중 42.6%인 1만8천8백63개소가 의무대상업소로 지정되게 된다.

우수축산물브랜드 모음집 발간 배부



농림부와 축산물등급판정소는 우수축산물인증브랜드의 소비촉진과 소비자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2007 소비자가 선정한 대한민국 우수축산물브랜드

모음* 홍보책자 20,000부를 발간해 소비자단체, 원산지의 무표시 대상업소, 유통업체, 생산자단체, 브랜드경영체등에게 지난 15일 배부하였다. 이번에 발간된 '우수축산물브랜드 모음'에는 2007년 우수축산물브랜드로 인증받은 한우 15개, 돼지 14개, 육우 2개, 육계 5개 등 36개 브랜드에 대한 경영체 현황, 브랜드육의 특징, 업체 수상경력 및 주요 판매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문화산책 - 밀양(密陽) Secret Sunshine



- 감독: 이창동
- 출연: 송강호, 전도연
- 장르: 드라마(142분)
- 개봉: 2007. 5.24

제60회 칸국제영화제 경쟁부문 공식초청작

미밀의 햇빛

인구 11만, 경상남도의 작은 도시

평범한사람들이 일상을 꾸려가는 삶의터전

이창동, 전도연, 송강호의 만남으로, 가슴 벅찬 미 프로젝트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을 것 같은 두 남녀의 아주 특별한 사랑 이야기

밀양 입구의 국도. 이들과 함께 죽은 남편의 고향을 향해 가던 신애의 고장난 차가 카센터의 중장을 불렀다. 택카치를 타고 밀양으로 들어가는 세사람. 그러나 아직 그들은 보른다.